한국무예학회 : 무예연구 2020, 제14권, 제1호(통권 - 제32호), 163 - 182
Korea Society for Martial Arts : Journal of Martial Arts
2020, Vol. 14. No. 1, 163 - 182

중국 태권도 수련생이 지각한 재미와 수련지속의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한 빙(가천대학교 석사) · **양대승****(가천대학교 교수)

국문초록

이 연구는 중국 초등학교 태권도 수련생이 지각한 재미, 자아탄력성 및 수련지속의도 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함과 동시에 재미와 수련지속의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중국 초등학교 태권도 수련생 340명의 설문지를 최종자료로 채택한 후 SPSS 23.0 및 AMOS 23.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구조방정식모형분석 등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중국 초등학교 태권도 수련생이 지각한 재미는 수련지속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중국 초등학교 태권도 수련생이 지각한 재미는 자아탄력성에, 자아탄력성은 수련지속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중국 초등학교 태권도 수련생의 자아탄력성은 재미와 수련지속의도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해 보면, 중국 초등학교 태권도 수련생이 지각한 재미는 자아탄력성 및 수련지속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특히, 자아탄력성은 수련지속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재미와 수련지속의도의 관계를 부분 매개함으로써 수련지속의도를 보다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주는 것으로 사료된다.

주제어: 중국, 태권도 수련생, 재미, 자아탄력성, 수련지속의도

---

* 이 연구는 한 빙의 석사학위 논문을 재구성 및 편집한 것임.

** taekwon@gachon.ac.kr

Ⅰ. 서 론

아동기의 신체활동은 신체의 균형적 발달에 도움을 줌과 동시에 잠재력과 건전한 정신을 키워주며(한봉훈, 2007), 스포츠 참여는 초기 단계의 사회화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한다(정구철, 2013). 아울러 아동기에 형성된 바른 인성과 긍정적인 정서는 청소년기 등 전 생애에 걸쳐 자신의 가치관과 행동양식에 영향을 미치기(윤아영, 이병찬, 2017) 때문에 전인교육 측면에서 아동의 신체활동/스포츠 참여가 적극 권장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태권도는 수련을 통해 아동들의 조화로운 성장 발달과 체력향상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긍정적 태도와 사고를 형성하는 등 사회성을 강화할 수 있는 무도 스포츠로 주목받고 있다(엄정식, 박남희, 2018; 최춘산, 곽택용, 오인호, 2010).

태권도가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 정식종목으로 개최된 이후 세계 태권도 시장은 급격한 변화와 발전을 가져왔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국가가 중국이다. 중국은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 천중선수(여자 +67kg급)가 금메달을 획득한 후 태권도 열풍이 일어났다. 즉, 대한민국에서 박세리 선수의 1988년 US 여자오픈 우승과 2008년 베이징올림픽 야구 금메달을 기점으로 골프 및 야구의 붐이 불었듯이 최근 10년 사이에 우슈가 전통무예인 중국에서 타국의 무도 스포츠인 태권도가 급성장하게 된 계기도 2008년 북경 올림픽 태권도 경기의 영향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 중국에서 태권도장의 보급범위가 도시에서 향토지역까지 확산되었으며(왕명욱, 민병석, 임봉우, 2018), 태권도 수련생이 약 100~400만으로 추정(中国产业信息网, 2016)되는 등 수련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국기원에서 발표한 품, 단 현황(국기원, 2019년 9월 기준)에 의하면, 현재 누진된 국기원 해외 유단(품)자는 1,387,784명이며, 그 가운데 중국의 유단(품)자는 약 17%인 234,535명으로써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이다. 하지만 태권

도가 1994년부터 중국에 정식으로 보급된 점과 현재의 대중적 관심도를 고려할 때, 중국의 태권도 시장은 보다 확장되어 태권도 수련생이 비약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렇듯 태권도가 중국 내에서 급격한 발전을 이루고 있는 바, 어떻게 하면 사회적인 흐름에 맞게 태권도 수련생을 지속적으로 유지 및 유치할 수 있을까?라는 화두를 던진다. 특히 베이징 올림픽 태권도 키즈인 초등 및 중학교 태권도 수련생들이 중국 태권도 수련인구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할 때 이들의 태권도 수련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수 있다면 중국 내에 태권도 기반을 보다 확고히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스포츠 활동의 지속성과 관련하여 ‘재미’가 주목받고 있다. 재미는 개인이 참여한 과제에 대해 즐겁고 흥미롭다고 느끼는 주관적 심리상태로써 어떤 활동을 시작하게 하고 지속 또는 포기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권순재, 2012; Cohn, 1991). 즉, 스포츠 상황에서의 재미란 스포츠 활동 참여 시 나타나는 긍정적이고 즐거움을 주는 느낌으로써 긍정적이면 더 높은 만족감을 경험하는(유정이, 오경록, 전병관, 2011) 반면 재미를 느끼지 못했을 경우 중도포기를 하게 된다(Petlichkoff, 1992). 특히,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는 초등학생들은 재미라는 동기를 경험했을 때 능동적이면서도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자신의 신체적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며 활동을 지속해 나가려고 노력한다(서향리, 2013)는 점을 고려할 때 스포츠 활동의 재미는 일반적인 체험이 아니라 지속적인 스포츠 참여를 결정짓는 핵심적 요인으로 간주할 수 있다(김병준, 성창훈, 1997).

한편 동일한 위험요인에 노출되었어도 위험요인들로부터 오는 자극을 지각하고 해석해서 받아들이는 개인의 심리적 반응은 차이가 있다(Masten & Costsworth, 2001). 예를 들어 같은 환경이지만 한 아동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잘 견디고 적응하지만, 어떤 아동은 그 상황을 견디지 못해서 이탈적 행동을 일으키곤 한다. 이때 잘 적응하고 대처할 수 있는 힘을 자아탄력성이라고 한다(Cicchetti & Toth, 1991). 즉, 자아탄력성은 직면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자아의 동기조절과 인지능력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써 성공적인 적응과 관련이

있다(Masten, Best, & Garmezy, 1990). 따라서 자아가 탄력적인 아동은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지만 반대의 경우 심각한 문제를 드러낼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자신과 타인에게도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Rutter, 1987).

전술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재미는 수련지속의도와 인과관계가 존재할 수 있음이 예측되고 개인의 정서적 행동 반응을 조절하는 자아탄력성은 재미와 수련지속의도 관계를 매개할 수 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재미와 운동 또는 수련지속의도 간의 관계를 검증한 연구는 다수 있다. 하지만 개인적 성격 특성인 자아탄력성을 매개변인으로 그 효과를 검증한 연구는 미약하며, 특히 중국의 태권도 수련생을 대상으로는 수행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중국 초등학교 태권도 수련생의 수련 지속성 강화 측면에서 재미와 수련지속의도 간의 관계를 검증함과 동시에 두 변인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규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아울러 제시된 연구결과는 중국 태권도 시장의 확장이 예측되고 있는 시점에서 중국 초등학교 태권도 수련생들의 수련지속을 유도함으로써 태권도가 중국 내 기반을 확고히 구축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중국 초등학교 태권도 수련생들이 지각한 재미는 수련지속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중국 초등학교 태권도 수련생들의 자아탄력성은 지각된 재미와 수련지속의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2-1. 중국 초등학교 태권도 수련생들이 지각한 재미는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 중국 초등학교 태권도 수련생들의 자아탄력성은 수련지속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중국 초등학교 태권도 수련생들의 지각한 재미와 수련지속의도의 관계를 매개하는 자아탄력성의 간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할 것이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는 중국의 9개 성(산동성 외 8)과 2개 직할시(텐진/중경) 총 11개 성 및 직할시의 태권도장을 모집단으로 설정한 후 비확률 표집방법의 목적적 표집방법을 이용하여 22개 태권도장을 선정한 후 태권도 수련에 참여하고 있는 초등학교 4~6학년 수련생 363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가운데 표기 누락, 이중표기, 특정번호 일괄 표기 등 답변이 부정확한 23명의 설문지를 제외한 340명의 설문지를 최종자료로 채택하였다. 일반적인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자의 특성

구 분		n	%	구 분		n	%
성별	남자	214	62.9	수련기간	1년 미만	80	23.5
	여자	123	36.2		1년이상 ~ 2년미만	78	22.9
	결측	3	.9		2년이상 ~ 3년미만	94	27.6
학년	4학년	112	32.9		4년이상	85	25.0
	5학년	106	31.2		결측	3	.9
	6학년	99	29.1	합계		340	100.0
	결측	23	6.8				

2. 조사도구

중국 초등학교 태권도 수련생들이 지각한 재미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한 검사지는 체육수업 재미거리 질문지(PCESQ를 기초로 윤여한(2011)이 사용한 설문지를, 자아탄력성은 Block & Kremen(1996)의 탄력성 척도를 초등학생들에게 적합하게 재구성 한 오영숙(2010)과 김수진(2016)의 연구에서 사용된 검사지를, 수련지속의도는 김귀종(2011), 최형근(2018)이 사용한 한 검사지를 연

구의 목적에 맞게 각각 수정·보완한 후 중국어로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특히 설문지의 중국어 번안 과정에서 타당도를 확보를 위하여 중국 현지 산동성 S 대학교 체육학과 교수의 자문을 거쳤다. 설문지의 최종 구성은 재미의 경우 총 3개 요인의 14문항, 자아탄력성은 총 4개 요인의 16문항, 수련지속의도는 단일요인의 4문항이며, 1점 ‘전혀 아니다’에서 5점 ‘아주 그렇다’의 5점 Likert 척도로 구성하였다.

3. 타당도 및 신뢰도 검사

이 연구에서 사용한 검사지의 타당도/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최대우도법)을 통한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TLI, CFI, RMSEA)와 각 하위요인별 개념신뢰도, AVE(집중타당도), Cronbach α계수를 확인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재미는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적합도 지수가 X^2= 175.604, df=50, p<.001, Q=3.512, CFI=.934, TLI=.913, RMSEA=.086로 나타났고(6, 14번 문항은 요인적제치가 .3이하로 나타나서 삭제함), 자아탄력성의 적합도 지수는 〈표 3〉과 같이 X^2= 161.070, df=48, p<.001, Q=3.356, CFI=.921, TLI=.922, RMSEA=.083으로 나타났으며(3, 10, 13, 16번 문항은 요인적제치가 .3이하로 나타나서 삭제함), 수련지속의도의 적합도 지수는 〈표 4〉와 같이 X^2= 3.330, df=2, p=.189, Q=1.665, CFI=.998, TLI=.993, RMSEA=.044로 나타남에 따라 각 변인에 따른 분석 모형은 비교적 만족스러운 것으로 판단하였다. 아울러 각각의 잠재변수를 측정한 문항의 요인 부하량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며, 각 하위요인별 개념신뢰도, AVE, Cronbach’s α도 비교적 수치가 적합하게 나타남에 따라 이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가 타당하고 신뢰할 만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 2. 재미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	문항	적제치	S.E.	C.R.	AVE	개념신뢰도	a
건강	재미1	0.763	-	-	0.729	0.914	0.838
	재미2	0.831	0.080	14.927			
	재미3	0.788	0.073	14.230			
	재미4	0.636	0.063	11.344			
성취감	재미5	0.609	-	-	0.521	0.813	0.744
	재미7	0.667	0.126	9.792			
	재미8	0.653	0.143	9.648			
	재미9	0.676	0.139	9.878			
사회성	재미10	0.768	-	-	0.634	0.871	0.813
	재미11	0.792	0.069	14.535			
	재미12	0.799	0.066	14.666			
	재미13	0.539	0.066	9.596			
모형 적합도: x^2=175.604, *df*=50, *p*<.001, Q=3.512, CFI=.934, TLI=.913, RMSEA=.086							

표 3. 자아탄력성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	문항	적제치	S.E.	C.R.	AVE	개념신뢰도	a
대인관계	자아탄력성1	0.743	-	-	0.529	0.767	0.708
	자아탄력성5	0.516	0.094	9.487			
	자아탄력성9	0.673	0.079	12.588			
활력성	자아탄력성2	0.682	-	-	0.507	0.752	0.703
	자아탄력성6	0.503	0.105	8.742			
	자아탄력성14	0.529	0.097	9.350			
감정통제	자아탄력성7	0.636	-	-	0.514	0.760	0.705
	자아탄력성11	0.586	0.087	9.526			
	자아탄력성15	0.564	0.088	9.227			
낙관성	자아탄력성4	0.668	-	-	0.534	0.771	0.710
	자아탄력성8	0.735	0.096	11.505			
	자아탄력성12	0.524	0.087	8.579			
모형 적합도: x^2=161.070, *df*=48, *p*<.001, Q=3.356, CFI=.921, TLI=.922, RMSEA=.083							

표 4. 수련지속의도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	문항	적제치	S.E.	C.R.	AVE	개념신뢰도	a
수련 지속의도	지속의도1	0.808			0.662	0.886	0.839
	지속의도2	0.806	0.064	14.922			
	지속의도3	0.801	0.059	14.845			
	지속의도4	0.615	0.070	11.151			
모형 적합도: x^2=3.330, *df*=2, *p*=.189, Q=1.665, CFI=.998, TLI=.993, RMSEA=.044							

4. 자료처리

수집된 자료는 통계패키지 SPSS 23.0 및 AMOS 23.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기술통계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AVE, 개념신뢰도, Cronbach’s α, 상관관계분석, 구조방정식모형분석(SEM) 및 부트스트레핑(bootstrapping)을 실시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성은 $p<.05$ 수준에서 검증하였다.

Ⅲ. 결 과

1.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가설검증에 앞서 각 요인의 평균점수를 산출하여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에 의하면, 각 요인의 평균은 3.69 ~ 4.17의 수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왜도(≤2.0)와 첨도(≤4.0)에서 이상치를 보이는 변인은 존재하지 않아 점수의 분포가 정규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상관관계 분석결과 역시 .9 이상의 높은 상관이 존재하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 5.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결과

구분	M	SD	왜도	첨도	a	b	c	d	e	f	g	h
a	4.17	0.59	-.911	3.437	1							
b	3.97	0.62	-.686	2.332	.609**	1						
c	3.84	0.71	-.924	1.986	.549**	.740**	1					
d	3.74	0.70	-.342	.706	.579**	.545**	.498**	1				
e	3.95	0.60	-.434	1.791	.586**	.550**	.477**	.683**	1			
f	3.69	0.69	-.123	.257	.528**	.565**	.459**	.659**	.646**	1		
g	3.95	0.63	-.736	2.786	.582**	.541**	.427**	.664**	.614**	.649**	1	
h	4.03	0.68	-.628	.798	.623**	.475**	.449**	.541**	.574**	.516**	.538**	1

$^{**}p<.01$

note. a=건강, b=성취, c=사회, d=대인관계, e=활력성, f=감정통제, g=낙관성, h=수련지속

2. 가설검증 결과

1) 가설 1 검증 결과

가설 1인 중국 초등학교 태권도 수련생들이 지각한 재미가 수련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분석을 실시한 결과,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X^2=113.441(df=13), $p<.001$, CFI=.917, TLI= .917, RMSEA =.080으로 모형의 모든 적합도가 기준치 이상으로 나타났다. 또한 <표 6>과 같이 재미가 수련지속의도에 긍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서 가설 1은 채택되었다.

표 6. 가설 1 검증결과

가설	경로			β	S.E	t	결과
가설1	재미	→	수련지속의도	.641	.108	9.515***	채택

$^{***}p<.001$

2) 가설 2 검증 결과

가설 2-1인 중국 초등학교 태권도 수련생들이 지각한 재미가 자아탄력성에 그리고 가설 2-2인 자아탄력성이 수련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분석을 실시한 결과,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χ^2= 153.438(df=42), p<.001, CFI=.949, TLI=.934 RMSEA=.088로 모형의 적합도가 비교적 적합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표 7>과 같이 재미가 자아탄력성에 그리고 자아탄력성이 수련지속의도에 긍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서 가설 2-1, 2-2는 모두 채택되었다.

표 7. 가설 2-1, 2-2 검증결과

가설	경로			β	S.E	t	결과
가설 2-1	재미	→	자아탄력성	.808	.086	12.265***	채택
가설 2-2	자아탄력성	→	수련지속의도	.737	.073	12.089***	채택

***p<.001

3) 가설 3 검증 결과

가설1, 가설 2가 채택됨에 따라 가설 3인 재미와 수련지속의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간접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분석을 실행하였다. 그 결과, 구조모형의 적합도는 χ^2=149.696(df=41), p<.001, CFI=.951, TLI=.934, RMSEA= .088로서 모형의 적합도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재미가 수련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가설 1의 검증과 비교할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β=.202, t=2.029, p=.042). 이에 bootstrapping기법을 활용하여 간접효과를 검증한 결과, 재미가 자아탄력성을 거쳐 수련지속의도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β=.542, p<.001), 이러한 결과는 자아탄력성이 재미와 수련지속의도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는 것을 의미한다.

표 8. 가설 3 검증결과

가설	경로			효과			검증결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 효과	
가설 3	A	→	B	.804***	-	.804***	채택 (부분매개)
	B	→	C	.563***	-	.563***	
	A	→	C	.202*	.452***	.654***	

***p<.001, *p<.05
note. A: 재미, B: 자아탄력성, C: 수련지속의도

Ⅳ. 논의

이 연구는 중국 초등학교 태권도 수련생의 수련 지속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재미와 수련지속의도 간의 관계를 검증함과 동시에 재미와 수련지속의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가 있는가를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도출된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를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한다.

가설 1을 검증한 결과, 중국 초등학교 태권도 수련생이 지각한 재미는 수련지속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국 초등학교 태권도 수련생들이 태권도 수련과정을 통해 재미를 지각함으로써 태권도 수련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지각한 재미는 수련지속의도와 상관관계가 높으며, 태권도 수련을 지속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민태, 2017; 김정근, 2014; 소영호, 2015; 원명구, 2012; 윤상화, 2015; 이문규, 2011; 이봉, 2010; 최형근, 2018). 이는 태권도 수련을 통해 재미를 지각한 대한민국 태권도 수련생들이 수련지속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국의 태권도 수련생들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추론 한 이 연구의 가설에 따른 결과를 직접적으로 지지해 주는 것이다.

이처럼 태권도 수련 시 지각한 재미는 국적을 불문하고 수련지속을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스포츠 활동에서 재미와 흥미를 느끼지 못하면 중도에 운동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기(Gould & Petlichkoff, 1988) 때문에 태권도장 지도자들은 다양한 수련프로그램 도입,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지도방법 적용, 과제난이도 조절을 통한 성취경험 제공 등과 같은 지도전략을 통해 태권도 수련생들이 수련과정에서 재미를 인식할 수 있는 수련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가설 2-1, 2-2를 검증한 결과, 중국 초등학교 태권도 수련생이 지각한 재미는 자아탄력성에, 자아탄력성은 수련지속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국 초등학교 태권도 수련생들이 지각한 태권도 수련 재미를 강화하면 자신이 처한 상황에 잘 대처하고 적응하는 역량인 자아탄력성을 긍정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으며, 개인의 심리적 특성인 자아탄력성 수준이 높을수록 태권도 수련활동에 저해되는 심리적인 문제를 감소시킴으로써 지속수련을 유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재미를 지각한 경우 자아탄력성이 증가되며(공혜준, 2017; 유비, 2015), 자아탄력성은 수련/운동지속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강지훈, 2012; 이양주, 2019; 조희진, 전현수, 권성호, 2013; 최예림, 이지항, 하은주, 2016)는 선행연구 결과를 직접적으로 지지해 줌과 동시에 중국 초등학교 태권도 수련생들이 태권도 수련과정에서 재미를 지각함으로써 자신이 처한 상황에 잘 대처하고 적응하는 역량인 자아탄력성을 긍정적으로 배양하며, 자아탄력성에 내재되어 있는 자아의 동기조절과 인지능력이 지속적인 태권도 수련을 유도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아동들은 학업성적, 또래와의 관계 등 다양하면서도 사소한 문제들을 늘 안고 생활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자신이 직면한 문제에 대해 대처하는 행동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아동기의 자아탄력성 증진은 더욱 중요시 되는 사항이다. 이에 이정화, 한희승(2013)은 아동기에 형성되는 자아탄력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부모의 양육태도에 의해 학령 후기 아동의 자아탄력성은 증진되며, 학교 내에서 교사의 역할이 자아탄력성 발달과 관련이 깊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태권도장 지도자의 역할과 관련하여 시사되는 바가 크다. 즉, 태권도장의 관장과 사범의 역할이 단순히 태권도 수련생의 기량 증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의 부모, 학교에서의 교사와 같이 교육적 측면에서 수련생들의 생활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함께 고민하며 소통할 수 있는 상담자 역할을 병행해 준다면 아동기 수련생들의 자아탄력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가설 3을 검증한 결과, 중국 초등학교 태권도 수련생의 자아탄력성은 재미와 수련지속의도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태권도 수련생이 지각한 재미가 수련지속의도를 향상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자아탄력성을 거쳐 수련지속의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즉 중국 초등학교 태권도 수련생들이 수련활동에 재미를 느낄수록 자아탄력성의 증진을 가져오고 이는 궁극적으로 수련을 지속하고자 하는 의지를 굳건히 함으로써 장기간 지속수련을 유도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결과는 재미요인과 수련지속의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선행연구가 미약한 실정임을 고려할 때 아동들의 적응력과 관련이 깊은 심리요인인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자아탄력성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스트레스로부터 자신의 자아를 적절하게 조절하거나 통제함으로써 융통성 있게 대처하고 동화할 수 있는 능력(Block, Kremen, 1996)인 바, 자아탄력성을 증진/발달시키는데 직·간접적으로 간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심리적 요인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중국에서는 태권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태권도장수가 증가하였고 수련생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방인주, 안용규, 2014; 안근아, 안진영, 2016). 따라서 태권도 수련생의 수련지속의도가 주는 의미는 태권도장의 경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즉, 수련지속의도가 높다는 것은 중도에 탈락하지 않고 태권도 수련활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겠다는 적극적인 마음가짐(김판수, 2012)으로 볼 수 있는 바, 태권도 수련활동에 만족하

여 장기 지속수련으로 이어진다면 태권도장의 재정 수입 안정성에 기여할 것이다. 아울러 장기 수련 학부모들의 구전은 자녀의 태권도 수련을 희망하는 인근 지역 학부모들의 선택을 유인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신규 수련생 확보에 용이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Ⅴ.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중국 초등학교 태권도 수련생이 지각한 재미, 자아탄력성 및 수련지속의도 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함과 동시에 재미와 수련지속의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중국의 9개 성(산동성 외 8)과 2개 직할시(텐진/중경시)의 태권도장에서 수련하고 있는 초등학교 4~6학년 340명의 설문지를 최종자료로 채택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3.0 및 AMOS 23.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개념신뢰도, AVE, Cronbach’s α, 상관관계분석, 구조방정식모형분석 및 부트스트레핑을 이용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이상의 연구방법과 절차를 통해 중국 초등학교 태권도 수련생이 지각한 재미, 자아탄력성 및 수련지속의도 간의 인과관계와 재미와 수련지속의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중국 초등학교 태권도 수련생이 지각한 재미는 수련지속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중국 초등학교 태권도 수련생이 지각한 재미는 자아탄력성에, 자아탄력성은 수련지속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중국 초등학교 태권도 수련생의 자아탄력성은 재미와 수련지속의도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중국 초등학교 태권도 수련생이 지각한 재미는 자아탄력성 및 수련지속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아탄력성은 수련지속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재미와 수련지속의도의 관계를 부분 매개함으로써 수련지속의도를 보다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주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 중 의미가 있는 부분은 재미와 수련지속의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는 것이다. 자아탄력성은 상황변화에 대처하고 유연하게 적응할 수 개인의 역량인 만큼 아동기의 자아탄력성 증진은 향후 행복한 삶을 영위함에 있어서 중요한 성격적 행동특성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아동기의 자아탄력성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직·간접적인 사회·심리적 요인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와 함께 대한민국과 중국 초등학교 태권도 수련생 간의 다양한 특성(성별, 수련기간 등)에 따른 차이를 규명할 수 있는 연구가 수행되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강지훈(2012). 생활체육 참가자의 기본적 심리욕구와 운동지속 및 포기의도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23**(4), 117-139.

공혜준(2017). **중학교 스포츠클럽 참여 재미요인이 자아탄력성과 학교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국기원(2019). 국기원 품단 등록 및 응심자 현황(2019년 9월). www.kukkiwon.or.kr/front/kor/information/report.action?cmd=List&pageNum=1&searchKey=1&searchVal=

권순재(2012).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송부와 게임의 재미와 플로우 관계. **정보시스템연구, 21**(2), 261-180.

김귀종(2011). **생활체육 무도지도자의 지도특성과 수련생의 내적동기, 수련만족 및 지속의도의 관계**.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김민태(2017). **태권도 수련활동의 재미요인이 내적동기와 수련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김병준, 성창훈(1997). 청소년 스포츠 참가자 심층이해(1): 스포츠 재미거리.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8**(2), 43-60.

김수진(2016). **가정환경 위험요인과 아동의 문제행동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과 교사애착의 중재효과**.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가천대학교 일반대학원.

김정근(2014). **초등학생 태권도 수련참여자의 재미요인이 자신감 및 운동지속의사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김판수(2012). **미국 태권도장 신뢰특성이 신뢰, 수련만족 및 수련지속행동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대학원.

방인주, 안용규(2014). 중국문화 인식을 통한 태권도협회의 발전방향. **스포츠사이언스, 32**(1), 15-22.

서향리(2013). 스포츠동아리활동 재미요인이 청소년의 심리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학회지, 52**(6), 387-397.

소영호(2015). 태권도 수련생이 지각하는 재미요인과 내적동기, 수련지속 및 포기의도의 관계. **한국사회체육학회지, 60**, 57-68.

안근아, 안진영(2016). 태권도학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국진출의 방향. **한국스포츠학회지, 14**(4), 681-690.

엄정식, 박남희(2018). 초등학교 태권도 수련생들의 긍정적 태도와 수련 몰입 및 수련 지속의 구조적 관계. **한국스포츠학회지, 16**(1), 31-41.

오영숙(2010). **초등학교고학년의 자아탄력성 증진을 위한 사회극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왕명욱, 민병석, 임봉우(2018). 중국 태권도도장의 서비스품질과 수련생만족도 및 애호도의 관계. **한국융합과학회지, 7**(2), 52-68.

원명구(2012). **태권도장 수련생들의 태권도수련재미에 따른 내적동기 및 수련지속의지 간의 관계**.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유비(2015). **중국대학 체육수업의 지도유형과 재미요인이 자아탄력성과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강원대학교 대학원.

유정이, 오경록, 전병관(2011). 생활무용동호인의 재미요인과 운동몰입 및 참여지속의 관계. **한국체육과학회지, 20**(2), 387-399.

윤상화(2015). 태권도의 재미요인이 운동몰입과 운동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

스포츠학회지, 13(3), 223-234.
윤아영, 이병찬(2017). 초등학교 태권도 수련생의 참여동기와 수련만족의 관계. **한국체육과학회, 26**(2), 147-155.
윤여한(2011). **대학 스키, 스노보드 수업의 재미요인과 운동지속행동, 운동몰입의 관계**.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이문규(2011). **태권도의 재미요인과 여가만족 및 운동지속의사의 관계**.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상명대학교 대학원.
이봉(2010). 어린이 여가활동으로서 태권도재미가 수련몰입 및 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여가레크레이션학회지, 34**(4), 89-101.
이양주(2019). 고등학교 복싱선수들의 스포츠자신감과 자아탄력성 및 운동지속의도의 관계. **대한무도학회지, 21**(2), 77-90.
이정화, 한희승(2013).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후기 남녀 아동의 자아탄력성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아동교육, 22**(4), 77-93.
정구철(2013). 스포츠 학습을 통한 Fair Play 인권교육에 대한 소고. **한국초등체육학회지, 18**(3), 151-165.
조희진, 전현수, 권성호(2013). 무용전공학생의 자아탄력성과 무용만족도, 무용지속의도의 관계.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24**(3), 39-51.
최예림, 이지항, 하은주(2016). 체조선수의 자아탄력성이 운동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 자기관리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27**(4), 1-12.
최춘산, 곽택용, 오인호(2010). 한국인 태권도 수련자와 중국인 무술 수련자의 사회성발달에 관한 연구. **대한무도학회지, 12**(1), 113-121.
최형근(2018). **초등학교 태권도 수련생의 지도자 신뢰가 재미요인 및 운동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한봉훈(2007). **초등학생의 스포츠활동 참가와 학교생활태도**.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Block, J. & Kremen, A. M.(1996). IQ and ego-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349-361.
Cicchetti, D. & Toth, S. L.(1991). The making of a developmental

psychopathologist. In J. Cantor, C. Spiker, & L. Lipsitt(Eds.), Child behavior and development: Training for diversity, 34-72. Norwood, NJ: Ablex.

Cohn, P. J.(1991). An exploratory study on peak performance in golf. *The Sport Psychologist, 5*(1), 1-14.

Gould, D. & Petlichkoff. L.(1988). Participation motivation and attrition in young athletes. In F. L. Smoll, R. A. MaCill, & M J. Ash (Eds.), Children in sport(pp. 161-178). Champaign, IL: Human Kinetics.

Masten, A. S., Best, K. M. & Garmezy, N.(1990). Resilience and development: Contributions from the study of children who overcome adversity.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2*(4), 425-444.

Masten, A. S. & Costsworth, J. D.(2001). The development of competence in favorable and unfavorable environments, *American psychologist, 53*(2), 205-220.

Petlichkoff. L. M.(1992). Youth sport participation and withdrawal: Is it simply a matter of fun?. *Pediatric exercise science, 4*(2), 105-110.

Rutter, M.(1987). Psycho social resilience and protective mechanism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7*, 316-331.

中国产业信息网(2016）. 2016-2022年 中国跆拳道市场 调研 及 投资策略咨询分析报告.智研咨询集团. http://www.chyxx.com/research /201604/404540.html

ABSTRACT

The Mediation Effects of Ego-Resilienc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un and Intention to Continue Training Perceived by TKD Trainee in China

Han Bing · Yang, Dae-Seung(Gachon Univ.)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fun, Ego-Resiliency and intention to continue training by Chinese elementary school Taekwondo trainees, and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of Ego-Resilienc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un and intention to continue training.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the questionnaire of 340 Taekwondo trainees in Chinese elementary school was adopted as the final data, and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the SPSS 23.0 and AMOS 23.0 programs. As a result, the conclusion is as follows. First, fun perceived by elementary school children is directly proportional to the intention of continuing training. Second, fun perceived by them is in direct proportion to the ego-resiliency and the ego-resiliency is in direct proportion to the will of continuing of training. Third, the ego-resiliency partially meditat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un and intention to continue training perceived by TKD trainee in China. According to these results, it turns out that fun perceived by elementary school children is directly proportional to the ego-resiliency and intention of continuing training. Specially the ego-resiliency is not only in direct proportional to the intention to continue training, but also affects positively the intention by partially meditat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un and intention to continue training.

Key words: China, TKD trainee, fun, ego-resiliency, intention to continue training.

논문투고일 : 2019.12.27.
심 사 일 : 2020.01.11.
심사완료일 : 2020.01.30.